

## 신산업구조비전

- 일본 경제산업성은 소사이터 5.0과 직결된 제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①교통, ②생산성, ③건강·의료, ④생활 등 4개 전략 분야에 대한 정책대응을 포함한 신산업구조 비전을 발표
  -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횡단적 대책으로서 ①룰의 고도화, ②경제의 신진대사 시스템, ③인재육성·활용 시스템, ④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, ⑤사회보장시스템, ⑥지역경제·중소기업 시스템을 구축
  - 과거의 산업구조비전이 일본 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등을 제시했듯이 이번 신산업구조비전도 정부가 소사이터 5.0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민간 기업이 실시주체가 되어 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임
- 
- 일본 경제산업성은 제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「신산업구조비전」을 완성
    - 2030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인공지능(AI)과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 등 신기술로 성장의 벽을 극복할 수 있는 로드맵과 정책을 제시
  - 이에 일본의 강점을 살려 일본에 혁신을 일으키는 리얼 데이터 플랫폼을 창출
    - 일본의 강점으로는 ①리얼 데이터의 취득·활용가능성, ②모노즈쿠리의 강점=선진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쇄신하는 능력, ③글로벌한 차원에서 본 사회적 과제의 선진성
- 
- ### 1. 4개 전략분야의 목표와 로드맵
- 이번 비전은 10년 만으로 일본정부의 성장전략의 골격으로 설정하고 있음
    - 핀테크 등 신산업육성을 위해 규제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의 도입도 포함하고 있음
    - 교통, 생산성, 건강·의료, 생활 등 4개 전략분야로 나누어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
- 
- #### 1) 교통 : 안전하게 이동(사람과 사물의 이동)

- 교통 분야에서는 자동운전의 보급을 가속화시켜 운전자가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반감시킴
  - 버스 등이 가까이에 없는 구매난민(생필품 구입에 어려움 겪는 노인)도 완전히 해소할 방침을 제시하고 있음
- 자동운전의 룰 정비에 대한 도로운송법차량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함
  - 신 도메이(東名)고속도로에서의 자동운전의 실증사업 등을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함

## 2) 생산성 : 스마트하게 창출(소비자의 니즈파악, 스마트서플라이체인, 공정의 효율화·고도화)

- 생산성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 등으로 2030년에는 노동생산성을 현재보다 2% 높이기로 함
  - 기업의 범위를 넘어 데이터를 공유, 2020년까지 데이터교환의 시스템이 50개 이상 가능할 때까지 지원

## 3) 건강·의료 : 건강을 유지·생애활약

- 건강·의료 분야에서는 평균수명과 건강연령의 차이를 5세 축소하는 목표로 설정 카르테(의사의 진료기록부) 등의 정보를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
  - 산업의 신진대사를 위해 산업혁신기구와 같은 판민펀드의 운영방식을 재검토할 필요성도 언급

## 4) 생활 : 스마트한 생활(새로운 도시조성, 셰어링, 핀테크)

- 공공데이터 개방 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, 사회과제의 해결/주민만족도·지역 활력 향상

## 2.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횡단적 정책

### 1) 룰의 고도화

#### <데이터>

-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정비
  - 역외유통에 원칙자유를 유지
  - 역내에서의 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제도정비

## ○ 전략분야의 리얼 데이터 플랫폼 구축

- 협조영역과 경쟁영역의 구분

## <지적재산권·표준>

## ○ 새로운 오픈/클로уз 전략을 뒷받침하는 지적재산권·표준 룰

- 데이터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제도 정비
- ADR제도(표준필수특허재정)의 창설
- 국제표준획득을 위한 체제강화

## <규제제도 개혁>

## ○ 일본판 regulatory sandbox(금융규제테스트베드: 현행 규제에 구애받지 않은 가상 공간을 만들어 금융·IT 등이 융합된 신개념 금융상품, 서비스 등을 미리 검증)도입을 검토

## 2) 경제의 신진대사 시스템

### <거버넌스/자금/산업재편>

-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원활한 산업구조·취업구조 전환에 도움이 되는 제도정비 (데이터, 사람, 사물·기술, 자금 등)
  - 코퍼레이트거버넌스(기업지배구조)의 강화
  -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리스크머니 강화 등

## 3) 인재육성·활용 시스템

### <인재투자·인재육성의 확충>

- 능력·스킬을 자기 스스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시키는 인재의 육성
  - 기초력으로서 IT리터러시의 표준장비
  - IT인재의 능력·스킬 전환, 미답IT인재의 발굴·육성

< 유연하고 다양한 노동방식 실현 >

- 일본형 고용시스템의 재검토
- 겸업·부업/고용관계에 의한 노동방식/다이버시티 2.0

< IT/데이터에 의한 노동방식 개혁의 가속화 >

-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(법제도, 예산, 세제 등)은 정부 전체의 성장전략, 경제산업성의 신정책에 구체화

4)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

< Center of Excellence >

- 세계 탐기술·지건의 집약

< 산학연계·대학개혁 >

- 산학연계·대학개혁에 의한 이노베이션

< 벤처 >

- 선순환을 창출하는 벤처에코시스템 구축


5) 사회보장시스템

- 개별화된 사회보장시스템
- 공적 보장과 자조의 조합
- 사회적 안전망 강화

6) 지역경제·중소기업 시스템

- 제 4차 산업혁명의 지역·중소기업으로의 확대
  -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사업의 촉진

### 3. 평가 및 시사점

- 일본은 이번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몇 차례 산업구조 비전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신산업구조 비전의 키워드는 소사이어티 5.0과 제 4차 산업혁명임
- 일본은 소사이어티5.0을 지향하고 이를 초스마트사회로 정의하고 있음
  - 소사이어티 5.0은 연령, 성별, 장소, 언어 등의 한계를 넘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공급받아 만족스럽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는 사회를 지향
- 그리고 소사이어티 5.0과 관련된 산업기술을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설정
  - 기술혁신을 계기로 한 제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하여 지향해야할 미래사회상인 소사이어티5.0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의 방향, 다양한 인력, 조직, 기계, 기술, 국가가 연결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
- 소사이어티 5.0을 통해 개인의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신산업구조 비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음
- 이를 위해 타파해야할 장벽으로 ①불확실성 시대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규제, ②청년의 활약과 재능을 가로막는 고용·인재시스템, ③세계로부터 뒤쳐진 과학·기술·이노베이션력, ④부족한 미래에 대한 투자, ⑤(데이터)x(AI)를 사용하기 어려운 토양/갈라파고스화를 제시
- 이들 장벽을 타파한 후 다음과 같은 사회를 지향
  - 개개인, 일본, 세계가 안고 있는 과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도전, 해결함으로써 참된 니즈에 대응하는 사회
  - 변혁기에 필요한 청년의 정열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케 하고, 인재들이 육성되고, 세계로부터도 재능이 모이는 사회
  - 불확실성 시대에 다양성과 도전을 한층 허용하고 기업가정신에 넘친 사회
  - 신기술 등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신속하고 글로벌하게 전개·쇄신함으로써 미래를 바꾸는 기대감에 넘치는 사회
  - 끊임없는 이노베이션에 의해 성장과 격차시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세계에 전례 없는 사회
- 과거의 산업구조비전이 일본 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등을 제시했듯이 이번 신산업구조 비전도 정부가 소사이어티 5.0의 플랫폼·나침반 역할을 하고 민간기업이 실시주체가 되어 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임. 

#### <참고자료>

경제산업성, 『신산업구조비전』 2017.5.30., 닛케이신문, 2017.5.30